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제시문 <가>

소크라테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 이집트 나우크라티스 지방에 테우트라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숫자와 계산법, 기하학, 천문학은 물론이고, 장기와 주사위 놀이, 게다가 문자까지 발명했다고 하네. 어느 날 테우트는 이집트의 왕인 타무스를 찾아가 자신이 만든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기술들을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네. 왕은 그 기술 하나하나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물었고, 테우트는 상세히 설명했지. 그런데 대화가 문자에 이르자, 테우트가 이렇게 말했다네. “왕이여, 이 배움은 이집트 사람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과 지혜의 묘약으로 발명된 것이니까요.” 그러자 타무스가 이렇게 대답했네. “기술이 뛰어난 테우트여. 그대는 문자의 아버지로서 그것에 대해 선의를 품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 생각은 정반대요. 왜냐하면 문자는 그것을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에 무관심하게 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망각을 낳아, 그들은 글에 대한 믿음 탓에 바깥에 있는 흔적에 의존할 뿐 스스로 기억해 내려하지 않기 때문이오. 그러니 당신이 발명한 것은 기억의 묘약이 아니라 상기의 묘약이고, 그대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지혜의 걸모양이지 참모습이 아니라고. 그들은 그대 덕분에 많은 것을 듣게 되고, 자신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대부분 그들은 무지하고 누군가를 상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걸보기에 지혜로운 자일뿐이요. 그러니 기술을 문자에 담아 남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문자로부터 무언가 명확하고 확실함이 생겨나리라는 생각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세. 그는 글로 쓰인 말들이 이미 앎을 가진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네.

파이드로스: 지당한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글쓰기에는 뭔가 **코도집의 인문논술자료** 그리기와 똑같네. 그려진 것들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보이지만, 자네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무겁게 침묵한다네. 글도 똑같다네. 자네에게는 그것들이 마치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글에서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언제나 한 가지의 같은 것만을 가리키지. 일단 글로 쓰이고 나면, 모든 말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주변과 그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들 주변을 똑같이 맴돌면서, 말을 걸어야 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지 못하네. 참된 인식과 함께, 배우는 자의 영혼 속에 쓰인 말은 자신을 지킬 힘이 있고, 상대해서 말을 해야 할 사람들과 침묵해야 할 사람들을 가려낼 줄 안다네.

파이드로스: 당신은 앎이 있는 자의 말을 일컬어 살아 있고 영혼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글로 쓰인 말은 그것의 영상(映像)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겁니다.

제시문 <나>

By contrast with natural, oral speech, writing is completely artificial. There is no way to write ‘naturally.’ Oral speech is fully natural to human beings in the sense that every human being in every culture who is not physiologically* or psychologically disabled learns to talk. To say writing is artificial is not to condemn it but to praise it. Like other artificial creations and indeed more than any other, it is truly invaluable and indeed essential for the realization of fuller, interior, human potentials. Technologies are not mere exterior aids but also interior transformations of consciousness, and never more than when they affect the

word. Writing heightens consciousness and it also provides for consciousness as nothing else does. Oral cultures indeed produce powerful and beautiful verbal performances of high artistic and human worth. Nevertheless, without writing, human consciousness cannot achieve its fuller potentials, cannot produce other beautiful and powerful creations. In this sense, orality needs to produce and is destined to produce writing. Literacy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not only of science but also of history, philosophy, explanatory understanding of literature and of any art, and indeed for the explanation of language (including oral speech) itself. There is hardly an oral culture left in the world today that is not somehow aware of the vast complex of powers forever inaccessible without literacy.

Technologies are artificial, but — paradox again — artificiality is natural to human beings. Technology, properly interiorized, does not degrade human life but on the contrary enhances it. The use of a technology can enrich the human mind, enlarge the human spirit, and intensify its interior life. Writing is an even more deeply interiorized technology than instrumental musical performance is. With telephone, radio, television, and various kinds of digital media, electronic technology has brought us into the age of ‘secondary orality,’ by contrast with primary orality, which refers to thought and its verbal expression totally untouched by any knowledge developed through writing or print. But secondary orality is essentially a more deliberate and self-conscious orality, based permanently on the use of writing and print. Secondary orality is both remarkably like and remarkably unlike primary orality. Like primary orality, secondary orality has generated a strong group sense, for listening to spoken words forms hearers into a group, a true audience, just as reading written or printed texts turns individuals in on themselves. But secondary orality generates a sense for groups immeasurably larger than those of primary oral culture as is indicated by McLuhan’s ‘global village.’ Moreover, before writing, oral folk were group-minded because no possible alternative had presented itself. In our age of secondary orality, we are group-minded self-consciously and programmatically. The contrast between oratory in the past and in today’s world well highlights the contrast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orality. Radio, television, and social media have brought major political figures as public speakers to a larger public than was ever possible before modern electronic developments. Thus in a sense orality has come into its own more than ever before. But it is not the old orality. The old style oratory** coming from primary orality is gone forever.

* physiologically: an adverbial form of physiology, meaning a branch of biology that deals with th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life or of living matter (such as organs, tissues, or cells) and of the physical and chemical phenomena involved

** oratory: the art of speaking in public eloquently or effectively

제시문 <다>

글쓰기와 글 읽기는 사치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여가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9세기의 감옥 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었을까? 감옥은 반체제 인사들의 또 다른 대학이었으며, 최상의 도덕적 자각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다. 서구 자본주의와 동구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적 항거의 실험실은 독재 체제 아래의 강제수용소와 포로수용소였다. 1840년부터 1930년까지 유럽의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유명한 사회주의자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어디에서나 쫓기는 신세였던 예전의 사회주의는 국경을 넘는 일에 능숙하게 되었고, 따라서 유럽 문화가 낳은 고유한 산물로서 등장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이 유럽 대륙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음으로써 서신 교환이 촉진되었고, 따라서 지식인들의 창조성이 꽃필 수 있었다. 그들의 몸은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서로 더 가까이 있었다. 확실히 사회주의적 글쓰기는 서간문학에 빛을 지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론적 작업의 절반을 편지로 수행했으며, 사실상 그들의 모든 정치적 활동은 우체통을 거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오늘날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사교적으로 변해가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지해지고 있다. 대화는 늘어났는데, 논쟁은 줄어든 것이다. 전화는 서신의 기술을 파괴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를 합리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지니고 있었던 권위는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전화 수화기를 붙들고 복잡한 원리와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는 수다를 떨기 위해 전화를 사용한다. 사소한 말들의 홍수 속에서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거창한 논의는 이제 개인의 내밀한 장신구 비슷한 것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봐야만 하고, 따라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는 말하자면 ‘자발적인 자택 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집은 곧 그의 성이다”라는 속담 아래 깔린 의미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고립된 개인들에게 일방적인 말을 전달할 따름이다. 또 휴대전화는 끝없는 일대일 관계일 뿐이며, 우리의 머리에서 보편적인 것을 몰아낸다. 전자우편(email)이 서신 교환의 장점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우편’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편지보다 대화에 가깝기 때문이다. 간단한 메시지를 빠르게 주고받는다라는 특성 때문에 전자우편은 글이라기보다는 말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짧고 일시적이고 즉흥적이며 대개 감정적이다. 이러한 구술적 성격의 글쓰기에는 일관된 논리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전자우편은 사람들이 함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유를 정립해나가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텔레비전, 휴대전화, 인터넷 역시 세계화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 간 연대의 유기적인 성격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계시민주의에는 해로운 것이다. 그것들은 만남과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적 관계의 영역을 확장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들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 뿐이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세계화하면서도 오히려 특수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라>

제2의 구술성(secondary orality)과 관련된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공동체 의식의 감소를 가지고 온다는 이론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별 디지털 매체 사용량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디지털 매체 사용량은 전자우편(email)과 협업 소셜미디어(collaborative social media)* 중 하나를 매일 이용하는 도시민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공동체 의식의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한 해당 도시 거주자들의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그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00점이다. 이 연구 결과, 조사된 도시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매체 사용량이 3% 증가할 때 공동체 의식 점수가

평균 10점 하락하였고, 이 감소량은 정규분포를 따랐다. 단, 거주자가 500만 이상인 대규모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이 정규분포의 표준편차는 5점이었으며, 아시아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10점이었다.** 서울시는 디지털 매체의 사용 증가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 대책을 위해 서울시가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서울 시민들의 전자우편과 협업 소셜미디어 사용량이 1년 후에 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업 소셜미디어는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iN 등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소셜미디어를 의미한다.

** Z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P(|Z| \leq 0.50) = 0.383$, $P(|Z| \leq 1.00) = 0.6826$, $P(|Z| \leq 1.65) = 0.90$, $P(|Z| \leq 1.96) = 0.95$, $P(|Z| \leq 2.00) = 0.9544$, $P(|Z| \leq 2.58) = 0.99$, $P(|Z| \leq 3) = 0.998$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1-(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1-(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의 사례를 평가하시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뉴욕 여성의 삶과 사랑을 그려낸 미국 TV 드라마가 한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는 대만의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도 매우 환영받았다. 그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드라마 내용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여성에게 정숙함과 자기희생을 기대하는 대만의 문화적 전통은 그 당시 여성 경제력 증가와 그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드라마는 이른바 ‘바람직한 여성’이 되어야 하는 의무와 더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원하는 욕망을 절충하려는 대만 여성들에게 문화적 대안을 제공했으며, 남성 지배적 세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투쟁에 영감을 제공했다. 다른 한편, 여성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감각적 세계를 즐기며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도 드러냈다.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 드라마의 교훈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2. 제시문 <라>를 근거로 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2-(1) 제시문 <라>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를 거주자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를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가 서울시 대책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2-(2) 제시문 <라>의 연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표 2], [표 3] 각각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표 안의 숫자는 해당 도시의 수를 의미한다.)

[표 1]

이메일 사용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432 (54.1%)	367 (45.9%)	799 (100%)
적다	482 (63.3%)	279 (36.7%)	761 (100%)

[표 2]

독서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428 (49.7%)	434 (50.3%)	862 (100%)
적다	486 (69.6%)	212 (30.4%)	698 (100%)

[표 3]

협업 미디어* 사용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341 (51.0%)	327 (49.0%)	668 (100%)
적다	573 (64.2%)	319 (35.8%)	892 (100%)

* 협업 미디어는 제시문 <라>에서 설명한 협업 소셜미디어를 의미한다.

문항 분석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1-(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1. <가>, <나>, <다>를 글쓰기와 지식 발전을 기준으로 삼자비교

1-(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의 사례를 평가하시오.

1. <나>로 사례 평가
2. <다>로 사례 평가

문제 2. 제시문 <라>를 근거로 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2-(1) 제시문 <라>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를 거주자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를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가 서울시 정책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1. <라>의 연구에 대해 간략히 제시
2.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표준편차가 5점일 때)에서 영향 설명
3.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표준편차가 10점일 때)에서 영향 설명

2-(2) 제시문 <라>의 연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표 2], [표 3] 각각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표 안의 숫자는 해당 도시의 수를 의미한다.)

1. <나>로 [표 1], [표 2], [표 3] 평가
2. <다>로 [표 1], [표 2], [표 3] 평가

제시문 분석

(가) - 글쓰기와 지식 발전(소크라테스의 말을 중심으로)

주체 - 소크라테스

배경

- 1. 글쓰기는 명확한 지식 전달 불가능
- 2. 글은 항상 같은 말만 하기에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음(=자신을 지킬 힘이 없음)
- 3. 글은 이해하는 사람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됨

양상 - 글쓰기는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결과 - 많이 있는 자의 말(=영혼 속에 쓰인 말)은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1.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음
- 2. 자신을 지킬 힘이 있음

먼저, 제시문 (가)는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의 대화를 통해 글쓰기와 지식 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드로스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반응하고, 그를 요약할 뿐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글쓰기와 지식 발전을 말하는 주체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의 말에서 글쓰기와 지식 발전 사이의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양상을 먼저 살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배경을 찾자면,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 질문의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이지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말 대부분에서 글쓰기는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근거는

“글도 똑같다네. 자네에게는 그것들이 마치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글에서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언제나 한 가지의 같은 것만을 가리키지.”

“일단 글로 쓰이고 나면, 모든 말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주변과 그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들 주변을 똑같이 맴돌면서, 말을 걸어야 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지 못하네.”

먼저, 글은 언제나 같은 것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고 하여도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만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 글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글쓰기는 지식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 두 근거들을 양상에 포함시켜도 문제는 없지만, 전부 다 배경에 집어 넣도록 합시다.

한편, 또 다른 배경도 존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말을 꺼내는 '테우트'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테우트는 글자를 발명하여 타무스 왕에게 보여줍니다. 테우트는 글자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지만, 타무스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생각은 정반대요. 왜냐하면 문자는 그것을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에 무관심하게 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망각을 낳아, 그들은 글에 대한 믿음 탓에 바깥에 있는 흔적에 의존할 뿐 스스로 기억해 내려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 당신이 발명한 것은 기억의 묘약이 아니라 상기의 묘약이고, 그대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지혜의 껍모양이지 참모습이 아니라고.”

타무스는 테우트가 발명한 글자라는 것이 지식의 전달 자체가 불가능한 매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글자로 만들어지는 글쓰기는 언제나 지식의 껍모습만을 나타낼 뿐, 명확한 지식 그 자체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여, ‘글쓰기는 지식을 명확히 전달할 수 없음’ 이라고 정리해줍니다.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그의 마지막 말과 파이드로스의 마지막 대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된 인식과 함께, 배우는 자의 영혼 속에 쓰인 말은 자신을 지킬 힘이 있고, 상대해서 말을 해야 할 사람들과 침묵해야 할 사람들을 가려낼 줄 안다네.”

“당신은 얇이 있는 자의 말을 일컬어 살아 있고 영혼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글로 쓰인 말은 그것의 영상(映像)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겁니다.”

파이드로스의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의 영혼 속에 쓰인 말’이라는 것은 ‘얇이 있는 자의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전체에서 소크라테스는 글쓰기라는 것은 지식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글쓰기와 대비되는 ‘얇이 있는 자의 말’은 지식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문자의 글쓰기와 달리, 구술의 말하기는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죠.

※제시문 (나)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어휘는 없으며, 문장의 구성도 단순한 편입니다. 염려되는 점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분량의 어지간한 한글 제시문보다 읽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시문의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제시문 (다)를 읽으신 다음에 (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 - 글쓰기와 지식 발전(secondary orality)

주체 - 인간

배경 -

1. 글쓰기는 인위적이지만, 외부, 내부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체(= 글쓰기는 지식 발전에 도움됨)
2. 구술 언어도 강력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지님
3. 현대에는 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전자 매체 발생

양상 - 이전의 구술과는 다른 ‘제 2의 구술성’이 등장함

*‘제 2의 구술성’ - 기존의 구술 언어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글쓰기의 방식으로 만들어졌기에, 글쓰기의 특성도 동시에 지님

결과 - 지구촌 형성/거대하고 체계적인 집단적 의견 형성 가능(제 2의 구술성은 지식 발전에 더 도움됨)

이 제시문은 주로 secondary orality(이하, 제 2의 구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글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Oral speech’와 ‘Writing’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Like other artificial creations and indeed more than any other, it is truly invaluable and indeed essential for the realization of fuller, interior, human potentials. Technologies are not mere exterior aids but also interior transformations of consciousness, and never more than when they affect the word. Writing heightens consciousness and it also provides for consciousness as nothing else does.”

먼저 Writing은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인공물들처럼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더 깊고 내면적으로도 실현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글쓰기는 의식을 고양시키고, 의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글쓰기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Writing의 특성과 더불어, oral speech에 대한 특성도 이야기합니다.

“Oral cultures indeed produce powerful and beautiful verbal performances of high artistic and human worth.”

이 글이 Writing에 대해 찬양을 한다고 Orality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Oral culture도 강력하고 아름다운 언어 행위이며, Writing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수준의 예술적, 인간적 가치 수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술 문화도 literacy, 즉,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존재해야만 함도 이야기합니다.

허나, (나)에서 이 둘을 이야기한 까닭은 글에서 Writing과 Oral culture를 찬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음 문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현대의 매체 발달과 더불어, 이 둘이 결합된 ‘제 2의 구술성’이 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With telephone, radio, television, and various kinds of digital media, electronic technology has brought us into the age of ‘secondary orality’, by contrast with primary orality, which refers to thought and its verbal expression totally untouched by any knowledge developed through writing or print.”

이런 ‘제 2의 구술성’은 글이나 인쇄를 통해서 발전된 지식들에 의해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사고와 언어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구술성과는 차별됩니다. 즉, 기존의 구술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이나 인쇄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literacy)’에 의존하여 존재해야만 했던 것이지만, ‘제 2의 구술성’은 그러한 능력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문자에 대해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But secondary orality is essentially a more deliberate and self-conscious orality, based permanently on the use of writing and print.”

‘제 2의 구술성’은 구술의 성격을 지녔음에도, 글쓰기와 인쇄의 사용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 2의 구술성’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 2의 구술성’은 구술 문화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문자성을 기반으로 생성되어 글쓰기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등장한 Writing과 Oral Culture에 대한 찬양을 ‘제 2의 구술성’이 어째서 강력한 것인지에 대한 배경으로 정리해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But secondary orality generates a sense for groups immeasurably larger than those of primary oral culture as is indicated by McLuhan’s ‘global village.’ Moreover, before writing, oral folk were group-minded because no possible alternative had presented itself. In our age of secondary orality, we are group-minded self-consciously and programmatically.”

결과적으로 제 2의 구술성은 기존의 구술성이 지녔던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마셜 매클루언이 ‘지구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집단적 의견을 형성합니다. 이런 제 2의 구술성이 나타난 시대에는 우리들은 더욱 체계적으로 집단적인 사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결과 항목에 정리해주시면 정리 독해는 끝이 납니다.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다) - 현대의 매체를 이용한 글쓰기

주체 - 사람들

배경 - 과거와 달리 미디어가 발달함

양상 - 예전에는 글쓰기(편지)를 통해 지식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현대의 매체를 통한 글쓰기는 지식 발전이 일어나지 못함

결과 - 사람들 간 유기적 성격 감소/세계시민주의에 악영향

제시문 (다)는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이야기를 과거와 현대의 차이점에 맞추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을 쓰고, 지식 발전을 이루는 주체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정리해도 좋습니다. 과거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과거와 현대에서 이러한 ‘글쓰기와 지식 발전’ 사이의 양상 차이가 발생했는가를 이야기하자면, 그냥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서는 각종 전자 매체가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해보입니다. 매체가 발달하여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양상에서 과거와 현대의 차이점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발생한 차이를 살펴봅시다.

“또한 어디에서나 쫓기는 신세였던 예전의 사회주의는 국경을 넘는 일에 능숙하게 되었고, 따라서 유럽 문화가 낳은 고유한 산물로서 등장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이 유럽 대륙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음으로써 서신 교환이 촉진되었고, 따라서 지식인들의 창조성이 꽃필 수 있었다.”

"오늘날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사교적으로 변해가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지해지고 있다. 대화는 늘어났는데, 논쟁은 줄어든 것이다."

먼저, 과거에는 사회주의의 발전을 예시로 들며 논지를 전개합니다. 사회주의가 발전된 것이 감옥에서 서로 서신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신(=글쓰기)을 주고 받으며 사회주의의 탄생과 발전(=지식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즉,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여러 전자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화, 전자우편, 텔레비전 등의 소통은 지식 발전에 크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전화는 과거의 서신이 가졌던 '사고를 합리화 하고 체계화하는' 역할을 파괴해버렸으며, 소통을 일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합니다. 텔레비전은 일방적인 메시지만을 전달하며, 전자 우편은 글쓰기이면서도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구술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확고한 사유를 정립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현대 매체를 통해서 발생하는 글쓰기는 전부 지식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텔레비전, 휴대전화, 인터넷 역시 세계화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 간 연대의 유기적인 성격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계시민주의에는 해로운 것이다. 그것들은 만남과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적 관계의 영역을 확장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들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 뿐이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세계화하면서도 오히려 특수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대의 매체를 통한 글쓰기는 결과적으로 큰 문제점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사람들 간의 유기적인 성격을 감소시켜 세계시민주의에 해를 입힌다는 것이고,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람들의 관계를 사적인, 개인적 관계에만 국한시켜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세계화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모두가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들로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여 결과 항목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1-1 문항 풀이

1-(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1. <가>, <나>, <다>를 글쓰기와 지식 발전을 기준으로 삼자비교

이 문항에서는 글쓰기와 지식 발전을 기반으로 세 제시문을 삼자비교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1번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삼자비교뿐만이 아닌, <나>, <다>를 활용한 사례 평가도 존재하니 이 제시문의 비교를 그렇게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상세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방금 전에 정리 독해한 내용을 토대로 표를 그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 정리 독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 제시문의 구도를 잡아봅시다. 1:1:1 아니면 1:2입니다. 1:2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글쓰기는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제시문 <가>를 1로 두고, 그와 반대로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나>와 <다>를 2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시문 <나>, <다>의 구술성에 대한 이야기와 <가>의 구

술성에 대한 측면에서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즉, '구술성'에 대한 평가까지 담은 삼자 비교 답안을 완성한다면, 글쓰기는 지식 발전에 도움이 안 되지만, 구술성은 도움이 된다는 제시문 <가>와 글쓰기는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구술성은 도움이 안 된다는 <다>를 서로 반대로 놓고, 이 둘을 결합하여 '제 2의 구술성'을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는 <나>를 둘 사이의 절충안으로 두는 것이 더욱 훌륭한 답안이 될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1:1:1의 구도로 봐야하며, <가>와 <다>가 반대, <나>가 그 둘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표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내용은 방금 정리독해한 내용을 토대로 채우시면 됩니다.

	<가>	<나>	<다>
공통점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 / 구술성에 대한 이야기		
주장	글쓰기는 지식 발전에 도움이 안 됨	글쓰기는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됨. 구술 문화와 결합하면 더 큰 도움	글쓰기는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됨
근거	지식을 문자로 옮기는 것은 단지 지식의 피상적인 것만 옮겨지기에 지식을 온전히 담을 수 없음	글쓰기는 인위적이지만, 내적/외적 지식을 모두 담을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구술 문화와 결합하여 제 2의 구술성을 형성하면 더 큰 영향력 생성	과거의 지식 발전에는 편지를 활용한 글쓰기가 도움이 되었지만, 현대의 매체를 통한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글쓰기는 도움이 되지 않음.
구술성에 대한 평가	앞이 있는 자의 말은 이해할 수 있는 자를 가려 내기도 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음 -> 긍정적	기존의 구술 문화는 강력했으며, 이것이 '제 2의 구술성'으로 발전하면서 더욱 강력해짐 -> 긍정적, 결합시에 더욱 긍정적	전화나 전자 우편, 텔레비전의 구술은 지식 발전을 위한 사유 정립에 도움이 되지 않음 -> 부정적
현대의 매체에 대한 평가	-	구술과 글쓰기를 결합시켜 제 2의 구술성을 탄생시킴, 더 나아가 지구촌이나 더 큰 의견을 형성하기도 -> 긍정적	현대 매체는 글쓰기에 사유의 과정을 없애고 무가치한 대화로 대체해 버림 -> 부정적

1-2 문항 풀이

1-(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의 사례를 평가하시오.

1. <나>로 사례 평가
2. <다>로 사례 평가

1-2를 풀기 전에 먼저 문항에 포함된 사례부터 살펴봅시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뉴욕 여성의 삶과 사랑을 그려낸 미국 TV 드라마가 한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는 대만의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도 매우 환영받았다. 그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드라마 내용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여성에게 정숙함과 자기희생을 기대하는 대만의 문화적 전통은 그 당시 여성 경제력 증가와 그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드라마는 이른바 ‘바람직한 여성’이 되어야 하는 의무와 더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원하는 욕망을 절충하려는 대만 여성들에게 문화적 대안을 제공했으며, 남성 지배적 세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투쟁에 영감을 제공했다. 다른 한편, 여성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감각적 세계를 즐기며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도 드러냈다.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 드라마의 교훈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이곳에서, 대만의 여성들에게 미국의 TV 드라마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여성들의 모습이 대만의 여성에 대한 문화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의견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토론을 하기도 하며, 인터뷰를 통해 드라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를 (나)와 (다)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나)로 사례 평가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곳의 대만 여성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특성과 구술 문화의 특성을 모두 갖춘 ‘제 2의 구술성’이라고 할 수 있는 TV 드라마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소통이 드러납니다. 그저 나타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대만의 여성들은 자신의 공통된 의견을 형성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이 거대한 집단적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인터뷰를 통해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로 사례 평가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곳의 대만 여성의 사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매체인 TV 드라마는 대만의 여성들에게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양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보다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소통합니다. 즉, 고립된 개인들이 나타나고, TV 드라마는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만을 전달한 것이지요.

이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토론을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유가 정립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판에서의 대화는 그들의 만남을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확장시켰을 뿐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 문항 풀이

2-(1) 제시문 <라>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를 거주자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를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가 서울시 대책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1. <라>의 연구에 대해 간략히 제시
2.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표준편차가 5점일 때)에서 영향 설명
3.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표준편차가 10점일 때)에서 영향 설명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라>는 디지털 매체 사용량이 3%증가하면, 평균적으로 공동체 의식 점수가 10점 하락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두 측면이 나옵니다.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점수 하락의 표준 편차가 5점으로 나타나고,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점수 하락의 표준 편차가 10점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제시문 아래의 각주를 통해 살펴보면 이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평균 점수의 하락이 10점에서 가장 높고, 그로부터 좌우로 균일하게 퍼지는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 편차가 5점일 때에는 표본들이 다들 평균 점수에 좀 더 몰려있는 형태일 것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일 때에는 표본들이 다들 평균 점수에서 더 벗어난 형태일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책의 방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표준 편차가 5점인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만든다면, 디지털 매체 사용량이 3% 증가할수록 평균적으로 의식 점수가 10점에 가깝게 하락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해결 방안을 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표준 편차가 10점입니다. 즉, 디지털 매체 사용량이 3% 증가할수록 의식 점수가 10점에 가깝게 하락할 확률이 적고, 더 적게 감소하거나, 더 많이 감소하는 극단적인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경우에 맞는 특수하고 미시적인 해결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족을 붙이자면, 서울은 500만 이상의 도시이면서 아시아에 있는 도시이기에, 둘의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일반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시적 해결법과 특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미시적 해결법 모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2-2 문항 풀이

먼저 표를 봅시다. 아래의 표는 <라>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표라고 합니다.

[표 1]

이메일 사용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432 (54.1%)	367 (45.9%)	799 (100%)
적다	482 (63.3%)	279 (36.7%)	761 (100%)

[표 2]

독서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428 (49.7%)	434 (50.3%)	862 (100%)
적다	486 (69.6%)	212 (30.4%)	698 (100%)

[표 3]

협업 미디어* 사용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341 (51.0%)	327 (49.0%)	668 (100%)
적다	573 (64.2%)	319 (35.8%)	892 (100%)

[표 1]은 이메일 사용량과 공동체 의식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표 2]는 독서량, [표 3]은 협업 미디어 사용량과 공동체 의식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먼저, [표 1]을 살펴보면, 이메일 사용량이 많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습니다. [표 2]는 독서량이 많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습니다. [표 3]은 협업 미디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나) -> [표 1], [표 2], [표 3] 평가

먼저,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표 1]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메일은 전자 매체를 이용해 만들어진 즉각적인 대화라는 '구술성'과 문자를 기반으로 작성된다는 '글쓰기'의 특성을 모두 지닌 '제 2의 구술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공통의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되었으니, 공동체 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표 2]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서를 통해, 사람들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지식을 공유하고, 인쇄된 매체를 통해서 공통된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어 공동체 의식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독서가 '제 2의 구술성'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더욱 더 큰 공동체 의식 향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표 3]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협업 미디어는 모두가 지식 생성에 참여하는 '제 2의 구술성'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쉽게 집단적 의견을 형성하여 지식을 만들어 내기에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 [표 1], [표 2], [표 3] 평가

먼저, [표 1]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메일 사용이 많으면 공동체 의식이 상승함을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공동체 의식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 못하고 특수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에 국한되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응답한 사람들이 많더라도, 이메일의 사용은 <라>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다면 공동체 점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높다’라는 응답이 존재하더라도,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형성하지 못해, 질적으로 낮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표 2]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다>의 과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독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고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독서를 한 사람들 전체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의 과거에 지식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편지와는 약간 다릅니다. 편지는 글쓰기와 글읽기를 모두 포괄하지만, ‘독서량’은 단지 글읽기에 국한된다는 점이지요.

[표 3]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협업 미디어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글을 올릴 수 있기에 전자우편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협업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표 1]처럼 그들의 소통이 개인적인 측면으로 국한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식 생산을 위해 글을 쓴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유가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성한 지식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라>의 글에서 알 수 있듯, 공동체 의식의 점수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시험에 대한 의문점들

Q. 왜 1-2 문항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한 양면 평가가 드러나지 않고 단면적인 평가만 드러나는 것인가?

A. 이 문항에서 굳이 양면 평가를 이야기하자면, (나)로 사례를 부정평가할만한 요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성들이 형성한 의견이 실질적으로 사회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례’가 보여주지 않은 것 뿐이지(혹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부분에 가깝지) 충분히 그러한 변화가 뒤따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론의 여지를 사례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를 통해서 긍정 평가를 하자면,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은 글쓰기와 글읽기를 포함한 활동일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활용하는 매체가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제시문 (다)에서는 이러한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와 글읽기는 부정적이라고 뜻을 박고 있기 때문에, 게시판에서 일어나는 글쓰기와 글읽기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조금 억지에 가깝습니다.

Q. 왜 제시문 <라>의 각주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넣었을까?

“Z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P(|Z| \leq 0.50) = 0.383$, $P(|Z| \leq 1.00) = 0.6826$, $P(|Z| \leq 1.65) = 0.90$, $P(|Z| \leq 1.96) = 0.95$, $P(|Z| \leq 2.00) = 0.9544$, $P(|Z| \leq 2.58) = 0.99$, $P(|Z| \leq 3) = 0.998$ “

A. 이에 대해서 원인을 조금 추론해보자면, 이곳에서의 표본이 되는 도시들이 다른 분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봅니다. 저기 나오는 숫자를 굳이 사용하는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바로 이런식으로 답안에 작성하는 것이지요.

“표준 편차가 5점인 500만 이상의 도시 대상 측면에서는 95%의 도시들이 자신들의 점수에서 -19.8점에서 19.8점의 차이를 보이지만, 아시아 도시들의 측면에서는 95%의 도시들이 자신들의 점수에서 -29.6점에서 29.6의 차이를 보인다. 즉, 아시아 대상 도시의 측면일 경우 점수의 격차가 500만 이상의 도시 대상 측면보다 각 도시별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런데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표본들이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Q. 2-2 문항은 왜 또 양면평가가 빠졌나??

A. 하라면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1-2에서 양면 평가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연결을 하여 답안을 완성한다면, 문제나 답안의 완성도가 심히 불-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불편한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Q. 문제가 왜 1-1,1-2 로 나뉘었나?

A. 원래 1번 문제가 요구했던 것을 두 개로 쪼개어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Q.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

A. 제 주위의 학생들 중, 이 시험을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하시길,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텍스트가 너무 많았다.', '양면 평가 억지로 생각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 등, 시간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